

광·운·소·식

광운,
미래와 통(通)하다
세상과 톡(Talk)하다

KWANGWOON NEWSLETTER | VOL. 111

소통의 힘을 가진 광운, 세상과 지역, 구성원과 함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광운, 미래와 통(通)하다 세상과 톡(Talk)하다”



CONTENTS



강민지 | 로봇학부 15

패션쇼, 매거진, 뮤직비디오, CF,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모델 강민지 학생.
로봇공학자를 꿈꾸던 그녀를 광운소식
기을호에서 만나본다.

- 04 소통의 힘 취임 100일 맞은 유지상 총장, “광운전자’, 옛 명성 되찾는다”
- 06 광운 POWER 1 학교법인 광운학원, 제13대 조선영 이사장 취임식 개최
- 08 광운 POWER 2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총 1,733명 학위취득
- 10 BANK 1 SNK-VITAMIN센터, 제2회 청년혁신 창업세미나 개최
- 12 BANK 2 tvN 어쩌다어른 손경이 강사 초청 성폭력 예방특강 개최
- 14 광운 PIONEER 대학내일 모델 강민지 학생
- 16 광운 FRONTIER 학생들과 책 펴낸 김서영 교수
- 18 GROUP 1 “뻔한 축제는 가라!” 유쾌했던 ‘광운 토크 콘서트’
- 20 GROUP 2 광운유학생 ALL-CARE 프로그램, 제1회 광운유학생 친교의 밤 개최
- 22 EDUCATION 외국인 유학생에게 들어보는 광운대 캠퍼스 라이프
- 24 KW NEWS 교수·학생 동정 & 캠퍼스 소식
- 30 나눔 + 소액기부자 김준엽 직원 & 고액기부자 손정완 대표
- 34 발전기금 안내
- 35 나눔캠페인

광운소식 2018 Vol.111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유지상
편집인 김정권
발행처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전화 02-940-5504~5
팩스 02-940-5506
주소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화도관 209-1호
제작 승일미디어그룹 070-7416-4124

광운대 유지상 총장의 소통릴레이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들과 소통의 시간 마련할 것”

광운대 유지상 총장은 1월 취임 이후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 ‘광운소통시스템(총장과 함께)’를 통해 구성원들의 청원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소통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밀착간담회 형식으로 신입생들과의 ‘햄버거 Talk Talk’를 진행했으며 4월에는 스포츠간담회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소통릴레이 ‘햄버거 Talk Talk’

취임 100일 맞은 유지상 총장, “광운전자”, 옛 명성 되찾는다

이데일리 신문사와 대담 진행

지난 2018년 1월 11일(수) 본교 10대 총장으로 취임한 유지상 총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데일리 신문사와 대담을 가졌다. 인터뷰에서 유 총장은 “광운대의 저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한 번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은 IC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기술인데, 이미 광운대는 관련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융합을 꾀한다면 ‘광운전자’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교내 교육 공간 시설을 확충했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역동성을 갖추면 된다. 광운대의 잠재력과 저력을 깨우는 총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 소통릴레이 ‘스포츠간담회, 뜻살 한판’



유지상 총장과 광운대 신입생들의 밀착토크

소통릴레이 ‘햄버거 Talk Talk’ 진행

2018년 3월 20일(화) 낮 12시, 유지상 총장은 신입생들을 만나 ‘광운대 유지상 총장의 소통릴레이, 그 첫 번째 이야기, 『광운 새내기들과의 햄버거 Talk Talk』’ 시간을 가졌다. 이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유지상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해 햄버거 식사를 겸한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햄버거 Talk Talk’로 이름 붙여진 밀착간담회에서는 가장 먼저 학생들과의 좀 더 편안한 소통을 위해 퀴즈 형식의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마음열기)이 진행되었다. 이후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해 궁금했던 점, 애로사항,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고민 등이 대화형식으로 자유롭게 오고 가며 즐거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유지상 총장은 “20년 넘게 교수생활을 하면서 학생들과 항상 함께했지만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학생들과 편하게 어울리기 어려워져 많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상 총장과 학생대표들과의 한판!

두 번째 소통릴레이! ‘스포츠간담회, 뜻살 한판’ 진행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5시, 유지상 총장은 처장단 및 학장들과 팀을 꾸려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과 ‘스포츠간담회, 뜻살 한판’을 진행했다.

이날 스포츠간담회 전반전에는 유지상 총장이 속한 A팀이 2:0으로 앞질렀으나, 후반전에서 학생 선수들의 약진으로 1:4의 득점을 기록하여 최종 4:3 스코어로 학생팀이 승리했다. 경기 후에는 노천극장 잔디밭에서 치킨과 콜라 등을 먹으며 학교 정책에 대해 궁금했던 점,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고민 등이 대화 형식으로 자유롭게 오고 가며 즐거운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유지상 총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광운대 뜻살구장에서 학생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본 것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회의석상이 아닌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한설 총학생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어서 구성원이 함께 학교 발전에 대해 고민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법인 광운학원, 제13대 조선영 이사장 취임식 개최

“구성원과 함께 열린 소통과 정보공유, 협력을 통해 광운만의 특색 있는 교육 실현할 것”

광운학원 제13대 조선영 이사장의 취임식이 2018년 5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이재경 국회의장 정무수석, 고용진 국회의원,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형원준 두산그룹 CDO 사장, 광운학원 산하 기관장 등 내·외빈 및 대학 교직원, 재학생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선영 이사장은 “8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운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광운 구성원들과 함께 꿈을 꾸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운가족들과 함께 열린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협력을 통해 광운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광운학원 산하 기관장들과 구성원들에게 “당면한 어려움이 클수록 광운의 비전을 기억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성과 양심, 그리고 체력을 갖춘 인재, 부지런하고 아끼어 쓰며 스스로 찾아서 하는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84년 역사의 광운이 100주년, 200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광운대 유지상 총장은 축사에서 “84년 전 설립자 조광운 박사께서 혁신적 창조를 하신 것처럼 오늘 취임하시는 신임 이사장께서도 혁신이라는 특별한 역동성으로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의 새로운 창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운학원 설립자인 화도(花島) 조광운 박사의 손녀인 조 이사장은 2001년 6월 Carnegie Mellon University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직이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연세대 대학원 경영연구소, KPMG 컨설팅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 10월부터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로 선임돼 상임이사로 재직했다.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359명, 석사 277명, 박사 41명 등 총 1,733명 학위 취득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는 2018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359명,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56명, 석사 277명, 박사 41명 등 총 1,733명이 학위를 취득해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이지현 학생(영어영문학과)이 전체수석을 차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각 단과대학 수석에게 수여되는 우수상은 ▲임동우 학생(전자공학과, 전자정보공과대학 수석) ▲손지훈 학생(화학공학과, 공과대학 수석) ▲이혜민 학생(전자바이오물리학과, 자연과학대학 수석) ▲이지원 학생(미디어영상학부, 사회과학대학 수석) ▲정직한 학생(법학부, 법과대학 수석) ▲정경원 학생(경영학부, 경영대학 수석) ▲이진희 학생(동북아문화산업학부, 동북아대학 수석)이 받았다.

또한 공로상 수상자는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 김성진 학생(동북아통상학부) △2017학년도 부총학생회장 이주영 학생(화학공학과) △2017학년도 총동아리연합회장 오학균 학생(전기공학과) △2017학년도 총동아리연합부회장 변수원 학생(국제학부) △2016학년도 광운알리미회장 한효경(화학공학과) △2015학년도 홍보대사 비마랑 회장 김혜진 학생(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017학년도 광운영상방송센터 학생국장 고지완 학생(미디어영상학부) △2013~2014학년도 영자신문사 편집장 전요한 학생(영어영문학과) △2017학년도 학생군사교육단 대대장 신희중 학생(전자통신공학과) △2017학년도 아이스하키부 주장 박준영 학생(생활체육학과)이다. 총동문회장상은 2017학년도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상훈 학생(법학부)과 2017학년도 학생군사교육단 중대장 남은혁 학생(법학부)에게 수여되었다.

유자상 총장은 졸업 훈사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경험,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들은 모두 여러분이 긴 안목에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데 든든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오늘 광운의 교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빈다”고 덧붙이며 학위수여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남겼다.

이와 함께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21대, 22대 광운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이재령 에릭슨엘지 엔터프라이즈 자문에게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 74학번인 이재령 자문은 엘지전자 계열사 밀단사원으로 시작하여 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또한 한국통신학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CEO대상, 정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베트남정부 공로훈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령 자문은 총동문회장을 맡으면서 광운대 출신의 인적네트워크가 넓고 굳건하게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운대학교는 개교 이래 학사 52,567명, 석사 10,112명, 박사 1,287명 그리고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2,594명, 특별과정 수료자 9,942명을 배출했다.





4차 산업혁명,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SNK-VITAMIN 센터 〈제2회 청년혁신 창업세미나 개최〉

정동훈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초빙 강연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올해 말까지 연계 진행

광운대학교 SNK-VITAMIN센터(센터장 김종하)는 지난 2018년 5월 21일(월) 교내 80주년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청년혁신 창업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는 본 세미나는 현재 창업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올해 말까지 연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5월 3일(목)에 이어 2회차를 맞이했다. 그 현장을 지금 소개한다.



제1회 청년혁신 창업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메이커 활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 막을 올렸다. ‘메가트렌드의 관찰을 통한 기술의 발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시장 변화’에 대해 최재규 대표(주)매직에코가 흥미롭게 풀어내었고,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숙명여대 겸임교수인 오재섭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신(新)직업/비즈니스 발굴’, ‘공유경제 등장에 따른 창업자 활동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5월 21일에 진행된 제2회 청년혁신 창업세미나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돋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운대학교 정동훈(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진행한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짚어봤다. 또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연결/초연결’,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로봇’이라는 핵심 키워드와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 중심으로 풀어나가 누구나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창의, 협업, 도전 등 핵심적인 역량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천, 실행력이 있어야 힘을 강조하였다.

강연자인 정동훈 교수는 특히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람’이다”라고 밀하며,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인재가 각광받는 현대에서도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요소의 중요성과 융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동훈 교수는 2008년부터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에서 디지털미디어, 디지털마케팅, 인간-컴퓨터상호작용학(HCI), AR/VR, 커뮤니케이션 등 인문학과 IT의 융합 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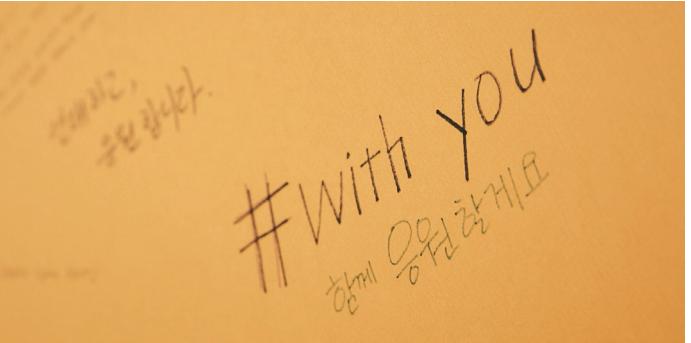
광운대학교 SNK-VITAMIN센터가 주관하는 본 청년혁신 창업세미나는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창업,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광운대학교는 2017년 단위형 사업에 이어 2019년 종합형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SNK-VITAMIN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다.

#With you가 있어야
#Me too가 있다

tvN '어쩌다 어른' 손경이 강사 초청 <성폭력 예방특강> 개최

'#Me too'와 '#With you'의
진정한 의미를
성별 간 오해나 편견 없이 풀어내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인 손경이 강사의 성폭력 예방 관련 특강 '#With you가 있어야 #Me too가 있다'가 진행되었다. 본 강의는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되었으나 강의 현장에 약 250명의 학생들이 몰리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특강에서 손경이 강사는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기 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배우고, 인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첫 번째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의 거친 악성이나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침묵”이라며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위드유(With you)가 있어야 미투(Me too)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최정흠 학생(미디어영상학부 4학년)은 “오늘 특강에서 이야기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흔히 장난처럼 주고받았던 말들과 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강의를 통해 인식이 개선되고 모두가 행복한,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손경이 강사는 성폭력 예방강사로 현재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범죄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On Style '뜨거운 사이다', SBS '다큐스페셜 - 나는 말한다' 등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최근 tvN '어쩌다 어른' 128번째 이야기 강사로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내일 커버 장식한 강민지 학생

**“새로운 걸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예요!”**

올해 4월에 매거진 대학내일 표지모델을 장식하며 주목을 받은 강민지 학생. 패션쇼, 매거진, 뮤직비디오 등 다방면에서 모델로 활동 중인 그녀의 전공은 의외로(?) 로봇학부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로봇공학자를 꿈꾸던 강민지 학생은 현재 모델로서, 그리고 로봇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원한 마스크와 또렷한 눈빛이 매력적인 강민지 학생을 만났다.

강/민/지

로봇학부 15

**Q. 대학내일 표지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되었나요?**

대학내일 표지모델은 꼭 한 번은 해보고 졸업해야겠다 싶었어요. 못 찍으면 대학 졸업 안 해야지 싶을 정도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웃음)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기회가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메일로 지원해본 끝에 연락이 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Q. 모델이라는 직업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요?

원래 꿈은 로봇공학자였기에 모델에 대한 관심은커녕 상상도 못 했어요. 주변에서 모델 해보라는 장난 반 진심 반의 말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W에서 주최한 모델 콘테스트에 도전했고 우리 광운대 학우들의 온라인 투표와 응원으로 4,500여 명의 지원자 중 TOP10에 들었어요. 그 후 자신감이 불어 슈퍼모델 선발대회에도 출전했고, 감사하게도 YG KPLUS와 계약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패션쇼, 매거진, 뮤직비디오, TV CF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고, 독립영화 조연, 드라마 단역 등의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요. 기회가 계속 닿는다면 차근차근 배우로서도 자리 잡고 싶어요.

Q. 로봇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예체능을 하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반해서 로봇공학자를 꿈꿨고, 고1 때부터 광운대학교 로봇학부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흥의 TED에서의 연설을 본 후 더욱 열정이 불타올랐고 간절히 원하고 꿈꾸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로봇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로봇은 전기, 전자, 기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이 융합된 학문이고, 영어로 전공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학우들의 열의로 수많은 로봇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훌륭한 전공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덕분에 차석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Q. 여담이지만, 강민지 학생의 인기는 어땠나요? 공대여신으로 불리고 있을 듯 해요.

저는 그저 화석입니다.(웃음) 이제 곧 19학번이 들어오겠네요. 올해에 휴학해서 한 번도 18학번을 못 봤는데 또다시 신입생이 들어온다니 조금 떨립니다. 모델이라고 소문나서 돈 많이 버는 줄 알 텐데 내년에 후배들 밥 사줄 생각하면 남은 18년도에 열심히 벌어놔야겠습니다.

Q. 로봇분야, 모델활동 모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나요?

어차피 인생이 꼭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적성에 맞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기회 닿는 대로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 명의 구성원이 꾼 열 개의 꿈

“학생들과 함께한 치유의 시간, 책으로 꼭 펴내고 싶었어요”

김서영 교수는 수업을 함께한 9명의 학생들과 책을 출간했다. 『어린 왕자,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 어린 왕자 심리수업(은행나무 출판사)』은 부제 ‘어린 왕자 심리 수업’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 이론을 매개로 어린이 되어 다시 읽은 『어린 왕자』 해설서다. 통찰력이 빛나는 학생들과, 학생들과 교감을 나누는 선생님이 만나 전에 없던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려준다.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열 번의 강의와 한 번의 토론 형식으로 이뤄진 이 특별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김서영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얼마 전 〈어린 왕자,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아직 이 책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제가 〈인간과 예술〉이라는 강의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이 강의를 수강한 9명의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당시 79명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했는데, 『어린 왕자』를 분석하는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분석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제가 느낀 것을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책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분석과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인간과 예술을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치유 이론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정신분석학이고 다른 하나는 분석심리학인데, 많이 다른 이론이라 이 이론들로 예술 분석을 하면 매우 다채로운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책 역시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학으로 『어린 왕자』를 분석했습니다.

Q.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나누었던 생각과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는다는 시도가 무척 새로웠습니다. 책을 내기까지의 과정은 어떠셨나요?

『어린 왕자』에 대한 단기 과제들이 무척 좋아서, 학기가 끝난 후에 책 작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장 분량의 완성된 분석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9명의 학생들이 분석보고서를 보냈고, 책 한 권의 분량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작성한 중간·기말고사 답안지와 보고서를 추가로 모았습니다. 그 자료들을 정독하고 아이들이 쓴 이론과 개념을 추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작성했습니다. 책 콘셉트는 저까지 10명이 둘러앉아 소규모 수업을 하는 것처럼 구성했고, 이미 아이들의 글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히 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완성했습니다.

Q. 많은 책과 영화들 중 〈어린 왕자〉라는 책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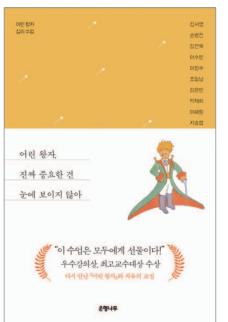
『어린 왕자』의 슬픈 내용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늘 학생들이 저보다 더 나았기에, 이번에도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질문에 진심을 담아 답해주었습니다. 그 답은 너무나 치유적이고 성숙하고 무한히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Q. 수업 과정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해석이 있으신가요?

각 인물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정신분석적 구조에 대해 가르치면서 남의 눈치를 보는 히스테리적 구조와 남을 밀어내고 내 규칙으로 내 세상을 닫아버리는 강박적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물었어요. “누구나 조금씩은 강박적이고 조금씩은 히스테리적이지 않나? 그럼 이 이론으로 어떻게 ‘성숙’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승엽이가 자전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각으로 서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그리고 조금 왼쪽으로 치우치며 그럼에도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즉 삶 속에서 성숙이란 그렇게 페달을 밟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떠오르네요.(웃음)

Q. 마지막으로 광운대 학생들에게 당부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부나 조언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 실험들 속에서 제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미숙한 부분들을 보이기도하는데, 늘 믿어주고 확신을 가져주고 참여해주고 버텨주어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 한계를 극복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삶, 죽음, 사랑, 이별, 친구, 관계, 슬픔, 행복, 좌절, 희망, 꿈,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모두 나름의 어린 왕자가 있다. 나의 어린 왕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책은 진정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머무는 법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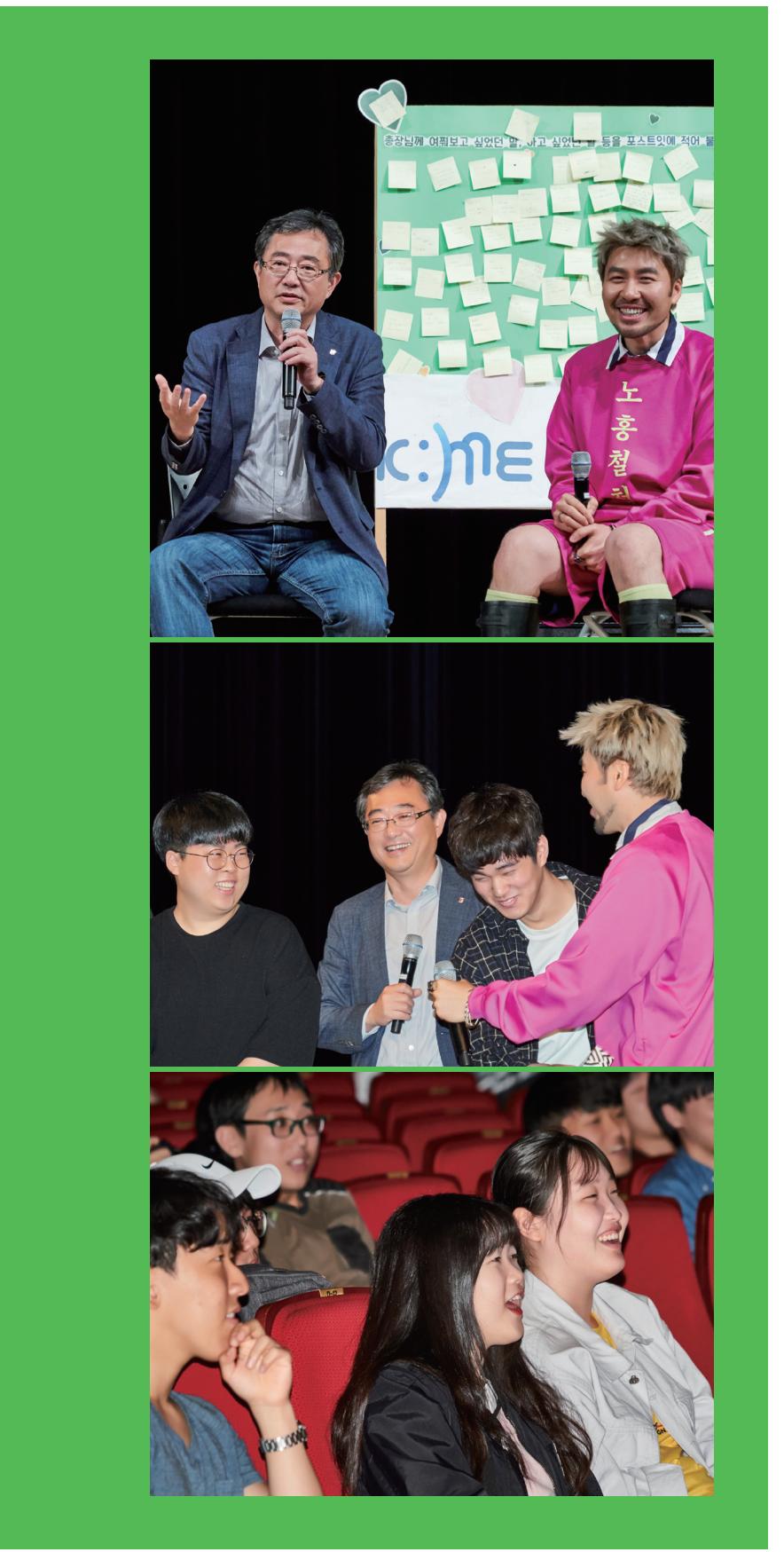


“뻔한 축제는 가라!” 유쾌했던 <광운 토크콘서트>

학내 대극장에서 방송인 노홍철씨 사회로 진행

‘스무 살 시절의 꿈’ 등에 대한 솔직하고 유쾌한 대화 나눠

2018년 광운대 축제 ‘월계축전’을 맞아 유지상 총장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2018년 5월 16일(수)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광운 토크콘서트>는 방송인 노홍철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광운 토크콘서트>는 행사 당일 입구에 설치된 고민판넬에 학생들이 총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사전에 붙여놓으면 노홍철의 사회로 유지상 총장이 즉석에서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스무 살 때의 꿈은 무엇이었나요’였다. 이에 유 총장은 “대학교에 갓 입학했던 새내기 시절이라 많이 놀기도 했지만, 당시의 꿈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꿈이었다”며 “현재의 삶도 만족하지만, 스무 살 당시 좀 더 원대한 꿈을 꾸었으면 또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운대로 삼행시를 지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유 총장은 “[광]운대학교는 [운]명적으로 [대]학교에서 최고다!”라는 즉석 삼행시를 지어 학생들의 환호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객석에서의 즉석 질문이었던 ‘총장님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광운대 총장으로서 광운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성공한 삶으로 봐줘서 고맙다”며 “뻔한 이야기 같지만, 목표를 잊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방송인 노홍철은 <광운 토크콘서트>에 대해 “축제 등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대학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총장님의 직접 편하게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즐겁게 즐기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오늘 축제의 모습과 토크콘서트 현장 분위기를 보니 광운대 내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 총장은 “무알콜 축제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축제에서 학생들과 즉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사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격의 없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조한솔 학생(미디어영상학부 2학년)은 “대본 없이 학생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솔직하고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신 총장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학교에 대해서는 더욱 애정이 생기고 총장님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총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오픈한 ‘광운소통시스템 – 총장과 함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소통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밀착간담회 형식으로 ‘신입생들과의 햄버거 Talk Talk’를 진행했고 4월에는 학생 대표들과의 풋살경기 ‘스포츠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운 유학생 ALL-CARE 프로그램 제1회 광운유학생 친교의 밤 개최

외국인 유학생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광운대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는 2018년 5월 10일(목) 오후 7시 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제1회 광운 유학생 친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교내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강화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광운유학생 ALL-CA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즐거움이 가득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제1회 광운유학생 친교의 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권 대외국제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유학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광운대학교, 즐거운 대학 생활이 보장된 광운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운선교회 및 광운국제유학생회를 맡고 있는 박정우 목사와 김형석 교수(전기공학과)의 특강 ‘환상적인 유학 생활’이 진행되었다. 박 목사는 “유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적으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유학 생활 중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국제교류팀과 광운국제유학생회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이후 힙합동아리 C-Spot의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 및 단체사진을 촬영한 뒤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국제교류팀 신문철 과장은 “처음 준비한 행사라 미흡한 부분도 있을 텐데 다행히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해줘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국제교류팀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유학생 관미이 학생(국어국문학과)은 “오늘 행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최근 유학 생활이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광운대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어서와~ 광운대는 처음이지?” 외국인 유학생에게 들어보는 광운대 캠퍼스 라이프

광운대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학업에 열중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캠퍼스생활을 즐기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떻게 광운대를 알고, 광운대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 이반홍(베트남·전자융합공학과 18), 황사익(대만·국제통상학부 18), 차현기르(우즈베키스탄·영어영문학과 18)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광운대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반홍: 원래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은 IT 강국이라 전자분야를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았어요. 특히 광운대는 전자공학 분야에서 앞서가는 대학이라는 정보를 얻고 입학하게 됐어요.

황사익: 한국 아이들 가수를 좋아해서 대만에서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었는데, 다니던 대만학교와 자매결연한 광운대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차현기르: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광운대는 인기가 많은 학교이고, 광운대에서 공부한 후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광운대에 처음 왔을 때 느낀은 어땠나요?

황사익: 교통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지하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 좋았어요. 또 대만 대학은 오래돼서 시설이 낡은 편이었는데 광운대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고장나면 아주 빨리 고치고요. 한국사람들 성격인 것 같아요.(웃음)

이반홍: 대학생활을 광운대에서 처음 하다 보니 낯선 게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친구들이 친근하게 대해줘서 많이 익숙해졌어요. 멘토링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차현기르: 광운대를 먼저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공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친구들이 도와줘서 빨리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광운대에서 한국학생들과 공부하고 있어요. 고국의 교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차현기르: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우즈베키스탄은 좀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국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업 때 질문도 많이 해요.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반홍: 베트남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들으면 베트남은 수업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베트남에 비해 강의 수도 많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많아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수학 빼고는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웃음)

황사익: 대만학생들은 자기 일이나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 수업시간에는 궁금한 점이 있어

도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느낌이 있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진 않았나요?

이반홍: 지도교수님과 선배들이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학생과 멘토링 수업을 통해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황사익: 저도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멘토랑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 친구도 친절하게 답해줘요.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각자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고 있어요. 추석에는 그 친구가 집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광운대, 이런 점이 좋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차현기르: 광운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잘 해주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어요.

이반홍: 국제교류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친구들에게 광운대에 대해 항상 자랑하고 있어요. 특히 전자공학 분야가 발달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황사익: 학교 시설들이 무척 잘 되어 있고, 국제교류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점을 매일로 많이 질문했었는데 항상 친절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광운대생으로 있는 동안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황사익: 대만에서 한국어 통역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광운대에 있는 동안 전문용어를 더 습득해서 수준 높은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또 대학 생활을 체험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어요.

차현기르: 첫 번째로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한국사람처럼요. 그리고 현재 전공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요.

이반홍: 한국사람처럼 스펙을 쌓고 싶어요.(웃음) 전공수업을 잘 듣고 외국어 능력도 많이 쌓고 싶어요. 한국학생들의 교육수준이 무척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황사익
대만·국제통상학부



차현기르
우즈베키스탄·영어영문학과



이반홍
베트남·전자융합공학과

광 / 운 / 뉴 / 스

01 [언론 인터뷰] '난치병 잡겠다' 최은하 플라즈마의과학센터장



최은하 교수(전자바이오물리학과)는 플라즈마와 의과학을 융합한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PBRC),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 센터장인 그는 난치성 질환 치료, 피부미용, 살균 등 '인류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플라즈마 의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 교수는 3월 23일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로라는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즈마를 산업에 적용한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플라즈마와 바이오, 의학을 융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어할 수 있는 플라즈마 구현은 중요한 요소를 가지며, 이와 관련한 기초연구와 의료기기 개발은 인류 건강에도 움이 되는 방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02 광운대 - 육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단장 주행시)은 2018년 3월 27일(화)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광운대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간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분야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간부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 ▲업무추진 간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필요한 전문분야 자문 지원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게 된다.

05 [인터뷰] 전기공학계 넥스트 리더 광운대 오종민 교수(전자재료)

2018년 4월 20일, 에어로졸 데포지션(AD:Aerosol Deposition) 공정을 개선하고, 이를 응용한 전자 디바이스 개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오종민 교수가 전기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오 교수는 "AD 공정

03 "램리서치 우수사원 선배 덕에 전공 교재 기증받았어요!"



광운대학교는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램리서치코리아(유)로부터 반도체 관련 전공 교재를 기증받았다. 이는 램리서치코리아(유)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전공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해 개최된 제 1회 Lam Research Korea Tech Conference에서 신입사원 부분 1위를 수상한 이용민 사원의 모교인 광운대를 방문한 것이다. 이 날 기증 행사에는 이용민 사원(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 10학번)외에도 램리서치코리아(유)의 손권 전무(광운대 전자재료학과 79학번)가 함께 방문해 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 학생들을 교실에서 직접 만나 학생들에게 교재를 전달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 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04 광운학원 동문특강 '광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꿈을 키우다!'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주)럭스로보 오상훈 대표를 초청하여 2018년 광운동문특강을 개최했다. (주)럭스로보 오상훈 대표는 광운대 로봇학부 10학번으로 2006년 세계 최초로 창단된 대학생 로봇게임단 로빛(Ro:bit)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특강은 '광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꿈을 키우다!'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학교법인 광운학원 산하 기관인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고등학교, 광운대학교 학생 약 2,000명이 참여했다.

을 활용하면, 재료적으로 세라믹, 메탈, 폴리mer 모두 코팅이 가능하다. 기판도 마찬가지며, 가장 큰 장점은 상온 공정이라는 점이다. 재료에 따라 제작 공정이 저온, 상온 등으로 다른데, 상온에서 동시에 복합체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무엇보다 고속 성막이 가능한데, 이런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06 "군·산·학 플랫폼 구축 앞장" 심상렬 방위사업연구소장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소장(국제통상학부 교수)은 4월 20일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군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학문적 연구가 제한되어 왔던 분야지만,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는 국방·방위사업 분야의 학문적 체계 및 이론에 근거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선진 국방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광운대 방위사업학과에서는 그동안 320 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으로 방위사업연구소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 다양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07 "광운대, '방송콘텐츠 학점연계과정' 성황리에 마쳐

광운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계절학기 대학생들의 방송분야 실무교육 및 직무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설한 방송 콘텐츠 학점연계과정 'OTT컨텐츠제작' 강좌를 성료했다. 여름방학 기간 45시간에 걸쳐 진행된 광운대학교의 이번 계절학기 강좌는 온라인 동영상(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OTT에 대한 이해와 1인 미디어 채널 운영 능력을 갖추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또한 OTT 채널의 기획, 제작, 마케팅 등 실질적인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강좌에는 방송영상 분야 현업 인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참여해 인기를 끌었다. 이번 계절 학기를 모두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점과 수료증이 부여되며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광 / 운 / 동 /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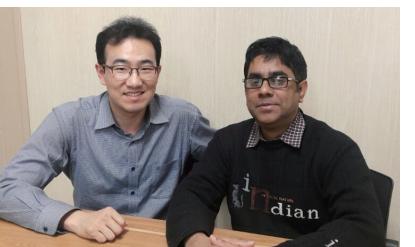
08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정보통신분야 최우수대학 선정

광운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하는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정보통신분야(전자통신공학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부서장이 분야별 핵심 역량, 관련 교과목 등을 제안하고 교육과정과의 일치도를 평가해 정보를 제공하



박재영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은 나노 PDMS와 PDMS-CNT 나노혼합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이차전지와 복잡한 아날로그 회로 없이도 광범위의 압력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전원 고감도 입력센서 및 인가된 광범위의 압력으로부터 고출력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마찰전기 에너지 수확소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dual-Halbach 배열의 초소형 영구자석들과 코일, 나노 잔디 및 나노동공 구조의 PTFE,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 동력 에너지 포집 및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용이한 고출력 전자기 유도/마찰전기 하이브리드 에너지 수확소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11 심준섭 교수 연구팀, 스마트폰 기반의 정밀 소변검사 소자 개발 성공



심준섭 교수 연구팀(전자융합공학과)은 랩온아침(Lab on a chip) 기술을 이용해 미세펌프가 탑재된 미세채널 내부에 소변검사 색자를 삽입하여, 높은 정확도로 소변의 4가지 건강정보(pH, 혈당, 단백뇨, 적혈구)를 측정할 수 있는 소변검사 소자와 이를 스마트폰으로 분석하여 검사결과를 보여주는 어플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지원사업 및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 결과는 분석화학 분야 세계 최고의 연구 전문저널인 ACS 출판사의 Analytical Chemistry(IF: 6.320)에 게재되었다. 또한 개발된 소변검사 소자에 대해 특허 등록까지 완료되었다.

12 김정현 교수, 배터리 필요 없는 무선 '초소형 피부 센서' 개발



김정현 교수 연구팀(전자융합공학과)은 배터리 없이 무선 통신으로 구동할 수 있는 초소형 피부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몸 전체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증명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피부 센서는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near-field communication, NFC)을 활용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방식에 비해 이용이 쉽고, 크기가 작은데 정확도도 향상됐다. 김정현 교수는 "NFC 무선 통신이 가지는 짧은 통신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3 박태원 교수 연구팀, 최우수 논문상 및 우수논문상 동시 수상

박태원 교수 연구팀(도시계획부동산학과)은 지난 4월 21일(토) 서울시립대에서 개최된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과 우수상을 동시 수상하였다. 최우수논문상은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트리리피케이션에 대한 측정지표를 제안하는 연구로 '지속 가능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트리리피케이션 측정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이며, 우수논문상은 로컬푸드 통한 상권활성화를 제안하는 '로컬푸드 상업명소의 공간구성요소가 방문자 장소선택에 미치는 영향분석'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권쇠퇴에 대한 도시재생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논문으로 선정되었다.

14 광운대 스마트센서융합기술硏, 산업통상지원부 중대형 사업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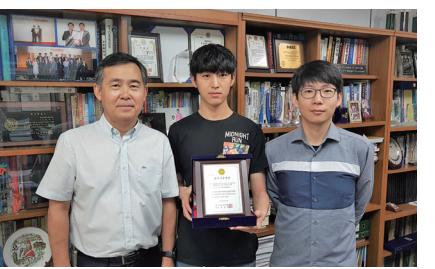


광운대 스마트센서융합기술연구소(소장 : 전자공학과 박재영 교수)는 산업통상지원부 지원의 '2018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산업융합형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전문인력양성사업)'과 '2018 나노융합 산업체심기술개발사업(비혈액 기반 대시증후군 모니터링용 패치형 나노 멀티센서 혁신기술개발)' 등 2개의 중대형 과제를 수주했다. 5년간 총 75억원의 정부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의 요소기술별 핵심역량과 산업 응용분야의 지식·경험을 겸비한 실무 융합형 석사 전문인력 양성이며, 주요 추진 내용은 참여기업 및 기술발전수준에 따른 시스템(PBL, DBL) 기반의 산학연계프로젝트 수행 등 석사 인력양성, 기업에서 요구하는 웨어러블 요소기술별 산업 융합형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위주의 공동교육(단기실무교육과정) 운영이다.

15 광운대 – 육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상신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은 지난 2018년 5월 30일부터 2박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 '제 25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회(COOC 2018)'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석박통합과정 이소르(Ishwor Koirala) 학생은 '비정질 실라콘 나노 기둥 기반 메타표면을 활용한 투과형 감산 컬러 필터'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광소자 분과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하였다.

16 정광수 교수, KCC 최우수논문상, 정보통신 우수논문상 수상



정광수 교수(전자통신공학과)는 지난 2018년 6월 20일(금)부터 22일(금)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정보과학회 201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 Korea Computer Congress)에서 사물인터넷 부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은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및 서비스 자동 구성을 위한 MQTT/DNS-SD 기반의 게이트웨이 시스템'으로 전자통신공학과 김건우 석사과정, 박지우 박사과정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박지우 박사과정과 제출한 'oneM2M 환경에서 MQTT 기반 사물인터넷 단말을 위한 서비스 탐색 기법', 김민수 석사과정, 김희광 박사과정과 제출한 '무선 환경에서 HTTP 적응적 스트리밍의 QoS 향상을 위한 안정성 기반의 품질 선택 기법' 논문도 우수논문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17 정승기 교수의 도서,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정승기 교수(전기공학과)가 집필한 '전기기계(학산미디어)'가 대한민국학술원이 선정하는 2018년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본 책은 전기회로 및 교류회로 계산의 기초가 있는 학생들에게 지습만으로 무리 없이 전기기계 전반의 요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주제를 수학적 도구를 최소화하고 쉽고 간명하게 풀어 설명해냈다.

광운대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의 결과물로 집필된 본 책은 2018년 1학기 현재 5개 대학에서 강의교재로 채택하여 사용 중이며 2019년에는 10개 이상의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8 권순철 교수 연구팀, VR · AR 기반 정밀 동체시력 측정 기술 개발



권순철 교수·김정호 박사 연구팀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동체시력측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체시력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법이 개발됨으로써 스포츠 및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 연구주제 기술과 VR·AR 기술을 결합해 동체시력을 타각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스포츠·교통·의학 등의 분야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 이상신 교수, 스마트센서 위한 초소형 광대역 분광소자 개발



이상신 교수(전자공학과) 연구팀은 김은수 교수 및 호주 국립대 최덕용 박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초소형의 광대역 분광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메타표면 기술을 이용하여 각 파장에 따른 전자기장의 성질을 제어함으로써 가시광 대역부터 극적외선 대역에 이르는 광대역(400~1500 nm)에 걸쳐 높은 효율이 고르게 유지되는 분광소자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메타표면은 사다리꼴 모양의 알루미늄 나노 안테나 한 쌍을 수직으로 쌓아 만들었으며, 그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고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통해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나노 소자 및 메타표면 기술을 접목하여 단일 소자를 통해 넓은 대역에 걸쳐 동작하는 초소형 분광장치의 개발은 새로운 접근법을 통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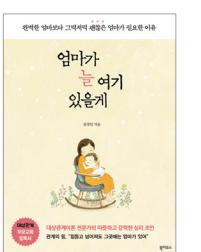
20 임영균 교수(경영학부), 공정 거래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상

2018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본교 임영균 교수(경영학부)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임영균 교수는 약



관과 기맹·유통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공정거래협약 평가 및 제도개선 자문, 기행사업 분쟁조정 및 민간자율규제 제도정착,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및 기행사업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임 교수는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관련 제도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촉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1 [신간출간] 권경인 교수(상복원) '엄마가 늘 여기 있을게'



권경인 교수(상복원대학원)가 신간 '엄마가 늘 여기 있을게—완벽한 엄마보다 그려저녁 괜찮은 엄마가 필요한 이유(복하우스)'를 출간했다. 권경인 교수는 이십여 년 경력의 상담전문가이자 상담전공 교수로 대상관계와 집단상담, 기업 코칭이 전문 분야다. 이 책에서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불안과 강박에 사로잡힌 '완벽한 부모'보다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여유를 가진 '그려저녁 괜찮은 부모'의 시선을 갖자고 말한다. 또한 내 아이가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이 있더라도, '엄마가 항상 그 자리에 있구나'라는 안정된 믿음을 통해 아이는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건강하고 출렁하게 자란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22 국제 재료 학술대회 'CCMR 2018' 컨퍼런스 성공리에 개최

광운대와 University of Arkansas,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Springer 출판사, CCMR 학회와 공식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 6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7회 국제 재료 학술대회 Collaborative Conference on Materials Research(CCMR) 2018」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국



제 17회 학술대회 CCMR 2018에는 국내·외 400명 이상의 유명 석학들이 참여했으며, 광운대 전자공학과 이지훈 교수와 컨퍼런스 총괄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국제 재료 학술대회 CCMR 2018에는 국내·외 400명 이상의 유명 석학들이 합류하여 committee member와 invited speaker로 참석하였다. 또한 90% 이상의 committee member와 invited speaker가 외국 기관에서 참여했고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 30개국 이상 400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23 [신간출간] 강성률 교수 '한국 영화에 재현된 가족 그리고 사회'



강성률 교수(동북아문화산업학부)가 신간 '한국 영화에 재현된 가족 그리고 사회(성균대출판부)'를 출간했다. 강성률 교수는 영화평론가로 활동하며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영화제 심사를 했다. '한국 영화에 재현된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는 한국 영화가 다채롭게 재현해온 가족과 여성, 젠더 그리고 세대의 문제를 문화 연구자이 평론가의 시선으로 면밀하게 분석했다. 한국 사회와 가족 담론의 변화상에 주목해온 저자의 문제의식은 신여성의 일탈과 파경을 그려낸 『미동』(1936)에서부터 각 시대별 문제들을 두루 거쳐 비틀면 가족이 겪는 시대의 비참을 담아낸 『고령화 가족』(2013)에까지 이른다.

24 국토정책연구소, (사)한국부동산 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광운대 국토정책연구소(소장 이춘원 : 법학부 교수)는 지난 6월 30일(토) 오후 2시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사)한국부동산법학회와 공동주관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일협력시대 북한지역개발 및 교류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남북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지역의 도시 및 지역의 개발 방향 및 운영의 공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광운

주가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정책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교수, 정책관련자, 각종 연구소, 학생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였다.

25 나노소자응용연구소,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우리대학 나노소자응용연구소(소장 이상신, 전자공학과 교수)가 '2018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으로 정부로부터 약 9년간(2018년 6월~2027년 2월) 총 48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향후 나노소자응용연구소는 나노 소자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디바이스 및 ICT 응용 관련 집중 연구 수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전공 분야의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과제를 통해 세계적 연구 역량을 갖춘 공학 중심의 선도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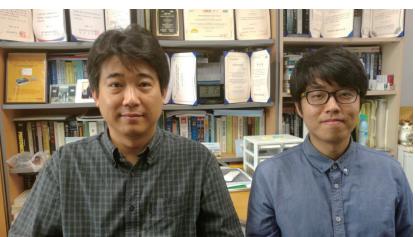
대는 학생부전형 선발비율 확대,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전면 폐지 등 대입전형 간소화를 위한 대입전형 개선 노력과 저소득층, 농어촌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중·고교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협업 노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6 육군사관학교 교장단, 양교 교류 협력 강화 위해 광운대 방문



2018년 7월 11일(수)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정진경 중장은 광운대를 방문하여 유지상 총장을 예방했다. 이번 예방은 곧 진행 예정인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도서관 구축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 공간구성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예방에는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정진경 중장과 함께 교수부장 박석봉 준장, 학령대 연구소장 전성현 대령, 교무기획처장 한재성 대령 등이 참석했다. 광운대에서는 유정호 기획처장, 김주찬 교무처장, 김정권 대외국제처장, 이향철 도서관장이 참석했다.

29 하태준 교수 연구팀의 논문, 저명한 저널의 front cover 선정



하태준 교수의 논문이 2018년 9월 게재된 Science of Advanced Materials 저널의 front cover에 선정되었다. 논문에 따르면 하태준 교수 연구팀은 접촉각 측정을 통하여 oxide 및 fluoropolymer 기반 박막의 표면 특성을 분석하였고, 자외선 오존 후처리 공정에 따른 각 박막의 표면 에너지 변화에 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현재 하태준 교수는 첨단 재료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센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연구조합 및 인쇄 전자 산업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캡/퍼/스/소/식

30 [Campus 소식] 광운글판, 2018년 봄 맞아 새로운 얼굴 선봬



2017년 봄부터 비마관 외벽 등 광운대 캠퍼스 세 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광운글판'이 올해 봄을 맞아 새로운 얼굴을 선보였다. 홍보팀에서는 지난 1월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광운글판 공모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96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홍보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2 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은 홍보팀에서의 디자인 작업을 거쳐 지난 4월 3일(화) 학내에 설치되었다.

31 [Campus 소식] 광운대학교 신입생환영 음악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2018년 3월 30일(금) 오후 5시 30분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는 광운대학교 신입생환영음악회가 열렸다. 2018년 새롭게 광운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신입생들을 포함한 광운 가족들의 자긍심, 애교심을 고취하며, 서로 화합과 격려, 축하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시발점을 삼고자 마련되었다. 공연에는 광운대학교 이종철 교수(전자융합공학과)와 노정진 교수(인제니어링대학), 조선낭 교수(인제니어링대학), 교내 음악동아리인 14freT과 노을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아마추어 성악가 4명의 재능기부가 더 해져 풍성한 공연이 되었다.

32 광운안전을 지킨다!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 비상벨 설치 완료

광운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대학 건물 내 여자 화장실 76개소에 경광등 76개와 비상벨 296개를 설치했다. 안심비상

벨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을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안내 문구가 외부에 부착돼 있어 사전에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성폭행의 위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응급 비상벨을 누르면 115db의 비상 사이렌과 함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경광등이 울려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33 광운대 무(無)알콜 축제 '2018 광운팡야' 성공리에 개최

광운대는 2018년 5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총 4 일간 열린 무(無)알콜 축제 '광운팡야'를 성공적으로 개최 했다. 본교는 무(無)알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자치 기구와의 계속적인 논의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주점이 운영될 소지가 있는 천막 및 학내공간을 제공하지 않기로 사전 협의했다. 또한 학교 축제 기간 동안 푸드트럭 등 허가된 사업자를 제외한 교내 수익성 사업 및 조리, 주류(무 알콜맥주 포함) 배분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대신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역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34 2018년 IEEE 최우수 논문상 'Best paper award' 받은 젊은 공학도



영국 요크대학교 전자공학과의 통신기술 박사과정 학생인 박성현(35)씨가 최근 IEEE(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가 개최하는 ICCECE(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에서 통신공학과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논문은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MA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통신하는 기기들의 채널 사용률을 높이는 기술을 다루고 있다. 수중통신은 전파 대신 음파를 사용하는데 수중에서 나타나는 음파의 특성 때문에 현저히 낮은 채널 사용률을 보인다. 해당 연구 결과는 수중 통신에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채널 사용률 향상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5 광운대, 9대의 차량 동시 충전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완료

광운대는 정부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기 수



을 대비하는 대학의 발전전략 '글로컬 멀티-유니버시티(Glocal Multi-University)'를 통해 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본교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36 로봇게임단 로빛(RO:BIT), 'RoboCup 2018' 3위 수상



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은 지난 2018년 6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RoboCup 2018'에서 1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세계로봇대회인 'RoboCup 2018'은 4개 대회 12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35개국 약 4,000명이 참가하여 5,000여대의 로봇을 통해 다양한 대회에서 우열을 가졌다. 광운대 로빛(RO:BIT)은 RoboCupSoccer의 Humanoid KidSize 부문에 참가했으며, KidSize Technical Challenge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37 2018년 광운대학교 광고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대외국제처 홍보팀에서는 2018년 본교 입시 홍보 및 이미지 홍보에 활용할 광고 시안을 제작했다. 올해 광고 시안은 시대적 이슈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만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올해 광고 메시지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Scientific Report의 편집위원들은 제출된 논문을 검토하고 논문의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41 이지훈 교수, MDPI Nanomaterials 에디터 선정



이지훈 교수(전자공학과)가 MDPI 출판그룹의 학술지인 Nanomaterials의 특별판 에디터로 선정되었다. MDPI Nanomaterials는 SCI/E(JCR Q1 Category, IF 3.504) 인덱스 저널로 나노 물질 관련 연구 분야와 관련된 리뷰, 정기 연구 논문 등을 다루고 있다. 이지훈 교수는 특별판인 'Special Issue on Nanotechnologies and Nanomaterials'에 제출된 논문을 검토하고 논문의 피어리뷰 과정을 총괄하며 최종적으로 논문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교수는 2018년 08월부터 총괄 에디터직을 수행하게 된다.

39 광운대, 2018년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K-MOOC) 선정

광운대는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모وك)'에 선정됐다. 2015년 10월 서비스를 개통한 K-MOOC는 질 높은 콘텐츠 및 양방향 학습관리를 제공해 약 58만 1000건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진 바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우수한 K-MOOC 강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학 단위 공모방식에서 강좌 단위 공모방식으로 변경했으며 개별강좌와 묶음 강좌로 구분해 선정했다. 이중 광운대는 전공기초분야에서의 '수학사'와 한국학 분야에서 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도시 인문학' 강좌가 선정됐다.

40 나렌드라 교수, Nature Scientific Report 편집위원 선정



나렌드라 교수(전자바이오물리학과)가 네이처 출판그룹의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에 출간된 Scientific Report는 SCI/E(JCR Q1 Category) 인덱스 발행률로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를 다루고 있다. 현직 과학자들로 구성된

즈 후즈 후 인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2019에 등재됐다. 김 교수는 한양대학교 관광학 석사, 영국 Bournemouth University 관광경영학 석사,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관광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국제저널과 국내 학술지에 다수 연구논문이 실리는 등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광운대의 일원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기쁘다"며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44 「제6회 풍력터빈 및 신재생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전자정보공과대학 학장 이종철은 지난 5월 25일(금) 오전 9시 80주년 기념관 310호에서 「제6회 풍력터빈 및 신재생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및 해외 풍력터빈 시스템 및 부품기업, 정부기관, 연구기관, 학교가 참여하여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는 광운대학교 이종철 전자정보공과대학장, 김병희 메카트로닉스공과대학장 등 주요 내·외빈과 학생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4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기남 위원장, 본교 중앙도서관 방문



지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1시 광운대 새빛관 대강의실에서는 탈북청년 이성주 작가의 통통(統通) 콘서트가 열렸다. '남북 청년들 지금 통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북한 사회를 떠돌다 털북해 2002년 국내에 정착한 이씨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남북의 인식 차이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250명의 학생들이 몰리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성주 작가는 "통일이 되더라도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 아닌 사람의 통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탈북민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이질감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43 김경배 교수(정보과학교육원),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김경배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

자랑스러운 광운의 얼굴

광운대 발전에 힘을 보탭니다

발전기금은 광운대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상의 기틀이다. 광운대에 많은 애정을 가진 동문들과 교직원들은 광운대의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기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에 소액 정기기부를 하고 있는 광운대 기획처 기획평가팀 김준엽 직원과 지난 9월 1천만원을 기탁한 (주)이레메티리얼스 손정완(화학공학과 91) 대표를 만나본다.



소액기부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 쓰이길”

김준엽 | 기획처 기획평가팀

현재 광운대 교직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2014년 처음 광운대학교에 왔으며, 현재 기획처 기획평가팀에서 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외부대학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운대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실천하기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기부를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결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소식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졸업한 학교에 기부를 생각했지만, 생각을 바꿔 제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학교에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데 고민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고, 금액적인 부분이 고민이었습니다. 기부라고 생각하면 큰 금액으로 해야만 할 것 같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실행에 옮기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싶었고,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어도 잊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시작으로 점점 더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결심한 후 어떤 절차를 통해 기부를 진행하시게 되었나요?

행정직원으로서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대외국제처를 방문하였고,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금이 광운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쓰이길 바라시나요?

미약하나마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 쓰이길 기대합니다.

광운대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속한 이 광운이 발전하는 것이 제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할 때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광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액기부자

“세계에서 경쟁하는 명문대학의 밑거름 되길”

(주)이레머티리얼스 손정완 대표 | 화학공학과 91

광운대 졸업 후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반도체, LCD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담는 특수 용기를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운대에 1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셨습니다.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자'를 실천하려고 여기저기 기부를 많이 하면서, 늘 학교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전기금을 계기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고민은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학교 측에서 너무 크게 감사해 주셔서 조금 송구할 뿐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매년 계속해서 기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부를 하는 데 광운대 재학시절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셨나요?

학력고사 세대로서 후기로 광운대에 입학하게 되어서 제 자신에 대해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에 대한 후회와 애착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결심한 후 어떤 절차를 통해 기부를 진행하시게 되었나요?

화학공학과 박철환 교수가 제 후배인데, 가끔 학교 소식도 전하면서 지내다가 박 교수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광운대를 위해 어떻게 쓰이길 바라시나요?

우리 광운대가 한국이 아닌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명문대학으로 우뚝 솟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광운대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같습니다. 공부, 취업준비 등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다른 눈과 행동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면 분명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발전기금 기부방법 안내

더불어 함께 광운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의미 있는 동행, 네이밍(Naming) 캠페인

광운대학교는 80여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거교적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네이밍 예시



내 이름 남기기 후원

| 구분 | 기부 금액 |
|-------------------------------|------------|
| 의자 | 20만 원 |
| 책상 | 30만 원 |
| 4인용 테이블 | 200만 원 |
| 6인용 테이블 | 300만 원 |
| 서가 | 300만 원 |
| 그룹 스터디룸 : 4인, 6인, 8인, 10인 | 1,500만 원부터 |
| 세미나실 : 10인, 12인, 20인 | 3,500만 원부터 |
| 강의실 : 소(30석), 중(48석), 대(200석) | 1억 원부터 |

기부 약정이 더 간소해졌습니다.

PC·모바일에서 <http://give.kw.ac.kr>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기부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부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휴대폰 결제, 자동이체(CMS), 카드 결제, 급여공제(교직원),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 상속재단 기부 : 고인의 유언증서,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상속세제 면제
- 법인(주식회사, 법인 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발전기금 종류 및 기타 후원방법 안내

- 발전기금 종류
 - 광운사랑 발전기금 : 광운의 발전을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 지정 발전기금 :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건축·장학·연구·기타 등)
- 현물 기부 및 기타 후원방법
 - 유형고정자산, 유가증권, 각종 법적 권리 등

후원문의

-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화도관 209-1호
- 홍보팀 : Tel 02-940-5505 Fax 02-940-5506 e-mail : kwlove@kw.ac.kr

글로벌 ICT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는
광운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발전기금 약정명단

| 10억원 이상 | 우리은행장위동지점 |
|-------------------------|--------------------|
| 하나은행 | 원종숙 교육대학원 12 |
| 삼성전자 | 원철상 국제통상학과 02 |
| 해동과학문화재단 | 위드유편인 |
| | 윤도영 교수 화학공학과 |
| | 윤영자 교육대학원 12 |
| | 이대희 교수 행정학과 |
| | 이랜드스포츠 |
| | 이문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5 |
| | 이반스포츠 |
| | 이상우 명예교수 화학과 |
| | 이상진 경영대학원 |
| | 포항스틸러스 |
| 1억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오종택 | OITA FOOTBALL CLUB |
| 구관영 응용전자공학 69 | 강원도민프로축구단 |
| 김문찬 | 광운꽃방 |
| 오경호 도원완구 대표이사 | 교육대학원 원우회 |
| 이웅주 | 김광섭 교육대학원 15 |
| 국민은행 광운대지점 | 김기영 前총장 |
| 임용재 미디어솔루션 대표이사 | 김성길 교수 교육대학원 15 |
| 엘지전자 | 김용희 전시내로공학과 79 |
| 이재명 전 동문회장 | 김현정 교육대학원 13 |
| 대한축구협회 | 대승이엔씨(주) |
| 정용택 학부모 (산업심리학과 정성훈) | 박구현 |
| 김영준 전자재료 86 | 박희동 직원 |
| 인프라넷 | 학생복지처 |
| 광운대총동문회 | 배길타선다이 |
| 신현은행 노원역지점 | 신재호 교수 화학과 |
| 엄평용 응용전자공학 77, 유진테크대표이사 | 심동규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
| 전인구 전기공학과 86 | 션웨이아이브텍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아이센스 |
| GS스포츠 | 윤종태 |
| 간송학술장학재단 | 이병설 전기공학과 75 |
| 강릉초당도부 | |
| 강영현 환경대학원 07 | |
| 광운포럼 직원퇴직자모임 | |
| 광주FC | |
| 국민은행 | |
| 김대흠 교수 화학공학과 | |
| 김문석 경영학과 88 | |
| 김우들교회 | |

| | | | | | | | |
|------------------------|-----------------|-----------------|------------------|----------------|--------------------|------------------|------------------|
| 이윤미 교수 화학과 | 김경선 | 서울시아이스하키협회 | 이준원 교수 법학부 | 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 강효경 교육대학원 06 | 김숙희 교육대학원 13 | 문명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0 |
| 임종태 응용전자공학과 66 | 김남영 전자공학과 | 송승호 교수 전기공학과 | 이충근 | 한신공영 |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원우일동 | 김순일 교육대학원 14 | 민상원 교수 전지통신공학과 |
| 장락우 교수 화학과 | 김명순 교육대학원 14 | 송시현 교육대학원 13 | 이타로 | 한종희 교수 행정학과 | 고병엽 직원 | 김승수 교육대학원 04 | 민영섭 행정학과 85 |
| 장지훈 | 김민동 교수 법학부 | 수원FC | 이하형 대학원 02 | 한준 명예교수 | 고선아 교육대학원 13 | 김승진 | 민일영 |
| 재직동문화 | 김상률 교수 경영학부 | 슈엔도로시 | 이혁준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 한화건설 | 곽민희 화학과 99 | 김승준 대학원 08 | 박범창 화학과 88 |
| 정달호 학부모 (정보과학교육원 정진우) | 김석우 교육대학원 13 | 신만중 교수 법학부 | 이현 대학원 02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권기성 교수 행정학과 | 김신한 화학과 00 | 박상준 화학과 05 |
| 정석재 교수 경영학부 | 김성국 | 신일제약 | 이현웅 경영대학원 12 | 핸디언즈 | 권기청 물리학과 88 | 김애자 교육대학원 13 | 박석 교수 생활체육학과 |
| 정지혜 대학원 15 | 김양래 교수 화학과 | 쌍용건설 | 이형근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 항립 | 권미현 화학과 05 | 김연영 화학과 01 | 박선하 직원 |
| 조형민 전자계산기공학과 85 | 김용환 제어계측공학과 92 | 아이스하키부동문화 | 이혜영 교수 행정학과 | 허구철 전자공학과 80 | 권지숙 직원 | 김영무 직원 | 박소연 교육대학원 14 |
| 천장호 前총장 | 김유곤 직원 | 아이스하키부학부모회 | 이혜진 전기공학과 07 | 허돈 교수 전기공학과 | 권현숙 교육대학원 14 | 김영부 응용전자공학과 71 | 박유진 교육대학원 03 |
| 최원기 | 김은죽 교육대학원 13 | 아류멘경영연구소 | 임영균 교수 경영학부 | 현대건설 | 김경채 | 김영조 스포츠지도자학과 01 | 박찬만 전기공학과 97 |
| 케이제이아이 | 김주찬 교수 행정학과 | 안창범 교수 전기공학과 | 장홍제 교수 화학과 | 현대엠코 | 김경호 학부모 생활체육학과 김현우 | 김용문 직원 | 박찬업 화학과 99 |
| 탁진국 교수 산업심리학과 | 김지연 교육대학원 14 | 애드런 | 전승협 법학과 03 | 홍광의 수학과 88 | 김고은 교육대학원 14 | 김옥 화학과 99 | 박철환 화학공학과 93 |
| 태영건설 | 김진곤 교수 법학부 | 에이앤유디자인 | 전지통신공학과 84학번 동기회 | 홍진웅 교수 전기공학과 | 김관일 | 김율희 대학원 12 | 박철원 화학과 92 |
| 티앤씨프로 | 김태훈 직원 | 오세훈 직원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희름종합건축사사무소 | 김기윤 교수 경영학부 | 김인기 | 박필예 교육대학원 12 |
| 하정인더스트리 | 김형석 교수 전기공학과 | 오창남 학부모 | 정병태 전자공학과 68 | 강인선 교육대학원 06 | 김나현 교육대학원 13 | 김인숙 | 박하나 직원 |
| 홍규화 | 남영건설 | 와이앤하우컨설팅 | 정승기 교수 전기공학과 | 곽태형 화학과 94 | 김남선 교육대학원 13 | 김임순 교수 환경대학원 | 박해진 화학과 96 |
| KB국민은행 락스타비마점 | 뉴바바 | 우리은행 대구혁신도시금융센터 | 정인준 전자공학과 68 | 광운플레이어스 | 김대선 교육대학원 08 | 김재미 동북아통상학부 08 | 박현규 전기공학과 86 |
| 임도영 교육대학원 12 | 대림산업 | 원양건축사사무소 | 조재희 교수 경영학부 | 김화열 | 김대호 화학과 93 | 김정기 화학과 94 | 박현자 교육대학원 11 |
| 강남이 교육대학원 13 | 대우건설 | 월계대반점 | 조진웅 전자통신공학과 82 | 남성전 영어영문학과 08 | 김도현 국제협력학부 14 | 김정숙 교육대학원 12 | 반상욱 직원 |
| 인영옥산부인과 | 대흥코리아주식회사 | 유선봉 교수 법학부 | 조현주 | 다인그룹엔지니어링 | 김동균 환경공학과 91 | 김정주 교육대학원 12 | 반윤구 |
| 이용대 교수 | 도건우 전자재료공학과 02 | 유태호 정보통신공학과 78 |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 본그레이 | 김동선 교육대학원 14 | 김종현 교수 전자융합공학과 | 배경호 화학과 96 |
| 임도영 | 동부건설 | 유희용 전자공학과 03 | 참사랑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 김동은 교육대학원 14 | 김준엽 직원 | 백주훈 교수 로봇학부 |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 | | | | | |
| BASF | 다엔제이 | 윤이숙 교수 국제협력학부 | 천성오 직원 | 시대의 사선 | 김지오 직원 | 김지숙 화학과 99 | 백향기 교육대학원 11 |
| GHE타워 | 로보티즈 | 윤환식 통신공학과 67 | 천진산업 | 신상훈 | 김지찬 | 김지화 교육대학원 14 | 서명화 교육대학원 14 |
|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 롯데건설 | 이기종합건축사사무소 | 최진석 | 일선종합건설 | 김진상 행정학과 86 | 서상구 교수 경영학부 | 서상구 교수 경영학부 |
| 가가와 | 문상현 교수 미디어영상학부 | 이기서 명예교수 로봇학부 | 최용훈 교수 로봇학부 | 장성균 무선통신학과 73 | 김민기 화학과 04 | 서승원 화학과 88 | 서승원 화학과 88 |
| 강미영 | 박수원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 이도준 응용전자공학 74 | 최재혁 | 김성수 전자통신공학과 84 | 김민원 교육대학원 11 | 김충혁 전기공학과 78 | 서영경 교육대학원 13 |
| 강우람 산업심리학과 05 | 박수진 교수 교육대학원 13 | 이상경 교수 법학부 | 최하옥 교육대학원 09 | 전지현 | 김병목 화학과 93 | 김태규 화학과 89 | 서영교 전자공학과 14 |
| 건원엔지니어링 | 박일우 교수 로봇학부 | 이상신 교수 전자공학과 | 카리반캠프 | 제이티비씨콘텐츠허브 | 김복기 전자공학과 81 | 김학록 화학과 97 | 서영호 전자재료공학과 94 |
| 계룡건설산업 | 박재석 전자내료공학과 85 | 이선호 행정학과 89 | 탁정애 화학과 90 | 와이낫미디어 | 김봉신 교육대학원 13 | 김현 | 서정선 교육대학원 14 |
| 고재욱 교수 화학공학과 | 박정우 경영대학원 05 | 이승택 교육대학원 13 | 토문엔지니어링 | 최칠순 교수 생활체육학과 | 김상훈 교수 경영학부 | 김해정 교육대학원 11 | 서정훈 직원 |
| 공간종합건축사 | 박종구 교수 행정학과 | 이영남 화학과 80 | 티웨이항공 | 케임브리 | 김석원 | 김효경 산업경영학과 84 | 성백순 경영학과 06 |
| 곽인찬 | 변대원 | 이영래 대학원 07 | 패밀리마트 | 파라다이스세가사마 | 김성룡 직원 | 김충빈 대학원 12 | 소민광 직원 |
| 광운분식 | 변유경 교육대학원 11 | 이옥진 교수 생활체육학과 | 피에이씨 | 간설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성호 교수 | 김희교 교수 동북아문화산업학부 | 손기인 화학과 96 |
| 권배근 | 부경희 교수 미디어영상학부 | 이윤상 직원 | 학지사 | 강민철 | 김성호 교수 | 나극환 교수 전자공학과 | 손화수 직원 |
| 권태복 교수 법학부 | 비엔컴컨설팅 | 이재일 교수 영어영문학과 | 한국마이크로칩 | 강신저 교육대학원 14 | 김성호 교수 | 나인표 경영학과 86 | 송경언 |
| 권현영 교수 대학원 | 삼성물산 | 이정훈 교수 전기공학과 | 한국번역기협회 | 강태경 | 김소영 화학과 98 | 남승우 직원 | 송영출 교수 경영학부 |
| 1백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의식 | 이상종 | 장미화 | 최주엽 | 4IR | Local |
| 송형수 교수 수학과 | 이상혁 제어계측공학과 92 | 장의수 교육대학원 04 | 최준혁 교육대학원 15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연결하다 | 지역사회 발전을 연결하다 |
| 신문철 직원 | 이상훈 교수 인제니움학부대학 | 전병호 스포츠지도자학과 02 | 최진철 신문방송학과 95 | | |
| 신유진 직원 | 이선정 화학과 01 | 정경학 전자계산학과 91 | 최찬영 컴퓨터공학부 99 | | |
| 신은정 교육대학원 12 | 이성재 | 정기봉 대학원 12 | 최혜숙 교육대학원 11 | | |
| 신재현 | 이승희 직원 | 정문호 교수 로봇학부 | 츄로바이커피 | | |
| 신정희 교육대학원 13 | 이영숙 교육대학원 10 | 정수미 교육대학원 14 | 탁연복 학부모 경영학부 이승원 | | |
| 심천보 전기공학과 86 | 이영희 | 정승철 직원 | 파란나리어린이집 | | |
| 안길환 화학과 99 | 이옥희 교육대학원 13 | 정용준 경영학과 83 | 평생다문화전공 | | |
| 양성현 교수 전자공학과 | 이윤석 화학과 92 | 정은진 직원 | 한솔시스템 | | |
| 양창근 건축공학과 91 | 이윤식 직원 | 정인숙 교육대학원 11 | 한해리 화학과 05 | | |
| 예약수 직원 | 이윤정 교육대학원 14 | 정주원 영어영문학과 02 | 한호숙 교육대학원 14 | | |
| 오승인 직원 | 이윤희 교육대학원 14 | 정진우 직원 | 함순정 | | |
| 오준희 직원 | 이은주 화학과 98 | 제기홍 전기공학과 74 | 허정 신문방송학과 96 | | |
| 오현주 화학과 06 | 이재선 화학과 93 | 제일은행 | 홍명현 직원 | | |
| 온정훈 화학과 97 | 이정준 화학과 00 | 조석효 직원 | 홍정숙 | | |
| 왕승찬 직원 | 이종열 직원 | 조선영 이사장 | 홍현표 화학과 95 | | |
| 우동영 | 이종용 교수 인제니움학부대학 | 조수열 직원 | 황대영 | | |
| 원정아 교육대학원 14 | 이종혁 | 조아랑 교육대학원 11 | 황문화 교육대학원 11 | | |
| 유미애 학부모 컴퓨터공학부 김승모 | 이주형 화학과 01 | 조인성 교육대학원 14 | KBS | | |
| 유정호 교수 건축공학과 91 | 이지영 직원 | 조인숙 화학과 97 | 김보영 직원 | | |
| 유지상 총장 | 이진경 직원 | 조총현 직원 | 김윤정 | | |
| 유콘시스템 | 이창민 화학과 95 | 주명희 교육대학원 13 | 김준현 | | |
| 윤명선 교육대학원 14 | 이창석 화학과 92 | 주문수 화학과 88 | 노진이 직원 | | |
| 윤상호 대학원 12 | 이창석 직원 | 진광희 교육대학원 14 | 라태웅 경영학과 06 | | |
| 윤선영 화학과 05 | 이현명 직원 | 진정민 교육대학원 14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 |
| 윤선희 교육대학원 14 | 이현순 직원 | 최금주 직원 | 박정호 화학공학과 12 | | |
| 윤우진 화학과 92 | 이현승 화학과 08 | 최동호 전자통신공학과 16 | 박현지 | | |
| 윤윤석 교수 경영학부 | 이혜정 화학과 96 | 최민희 | 용철증 법학과 07 | | |
| 윤탁 상담복지정책대학원 09 | 이홍 교수 경영학부 | 최병광 직원 | 유정문 | | |
| 이강백 전기공학과 82 | 이화정 교육대학원 11 | 최복선 교육대학원 10 | 이성은(평강어린이집) 교육대학원 15 | | |
| 이강성 교수 인제니움학부대학 | 이홍섭 경영학과 98 | 최상두 | 이지향 교육대학원 15 | | |
| 이건영 교수 전기공학과 | 임시혁 경영학과 06 | 최성수 화학과 99 | 임형태 | | |
| 이경철 컴퓨터공학과 09 | 임의순 교육대학원 13 | 최승오 교육대학원 14 | 장청훈 | | |
| 이근수 화학과 05 | 임종대 직원 | 최인찬 전자계산기공학과 82 | 정경진 대학원 | | |
| 이대의 | 임중식 직원 | 최재완 직원 | 조영록 직원 | | |
| 이동석 직원 | 임하순 | 최재준 직원 | 조영주 | | |
| 이동의 정보제어공학과 03 | 임호선 직원 | 최재청 직원 | 차주현 대학원 14 | | |
| 이두병 화학과 91 | 임화영 교수 로봇학부 | 최정순 교육대학원 13 | 표정우 직원 | | |
| 이미영 교육대학원 13 | 장경순 직원 | 최정훈 직원 | | | |
| 이병현 교수 경영학부 | 장동훈 | 최종대 화학과 89 | | | |

2009년 3월 1일 ~ 2018년 9월 30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초연결 사회/
글로벌 멀티 유니버시티로 나아가는 광운대학교가 세상의 꿈을 초연결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